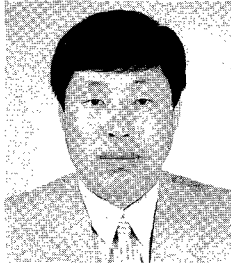


기회 엿보는 채란업 경영은 도산 위험 높다.



조 용 옥
관동농장 대표
본회 평택채란분회장

I MF 경제체제하에 들어간 지도 5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
도위기를 겨우 넘겼다는 안도감에서인지 도
시에서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여행
이 다시 고개를 들고, 골프장의 주차장은 다
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

지 않는다.

외국의 예를 볼 때 우리가 IMF를 탈출하려
면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IMF사태가 발생한지 겨우 5개월에 접어든 지
금 원화가치가 다소 회복되고 주가가 일시적으
로 상승하였다고 과거를 벌써 잊어버려서야 되
겠는가? 국민들은 식생활을 주도하고 있는 축
산농가들이 자금난으로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마스크에서는 사료의 질이 떨어져 연란
과 파란이 심하게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있
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는 일부 사
료회사에 국한된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IMF사태가 축산업계 전체를 허술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필자는 부친께서 평생 일궈온 과수원을 물려
받아 15년 전부터 양계업에 몸을 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과수원의 거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2만수 정도로 규모를 유
지하고 있다.

우리 평택분회는 18명의 회원이 어려운 가
운데에서도 비교적 내실있게 업을 이끌어 가
고 있는데도 사료값 인상, 계란값 인하 등으로
점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회원농가들이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
다.

그러나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유통질서는 더
욱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그만두었다
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양계
장은 계속 입추열기를 높여가고 있으면서 노계
도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현
상이 계속될 경우 앞날을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1. 생산성 저하, 사료만 탓할 것인가!

우리농장은 중추관리부터 산란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타 농기들보다 중추사육비에서 수당 500원 정도 즉, 2만수를 관리하니까 1천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위탁사육을 했을때 보다 성적이 우수하였던 예가 많았음을 볼때 경제성 면에서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중추육성은 닭생애 전 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시기 보다 중요한데 경험에서 보면 산란지속성이 위탁사육을 했을때 보다 우수하게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사료가격이 인상되면서 우리농장은 물론 회원농장의 경우에서도 생산성이 나빠짐을 경험하고 있다. 산란율은 떨어지고 사료섭취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성계의 경우 보통 120g을 섭취하던

것이 요즘 들어서는 130~135g을 섭취하고 있으며 산란율도 7~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료의 질이 나빠지면서 닭들은 영양분을 더욱 보충하기 위해 많은 양의 사료를 섭취하게 되고 부족한 영양섭취로 산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사료회사에서는 더 많은 사료를 판매하여 이득이 될지 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성분이 골고루 함유된 사료를 공급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단 사료가격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농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농가에서는 높은 사료가격만 탓할 것이 아니고 사료선택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계란생산량을 미리부터 조절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부

가가치를 계란에서 찾으려는데 노력을 해야하며 사양관리 측면에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여름철에 대비한 사양관리를

닭들은 육종개량이 진행됨에 따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고온스트레스에 의해 식욕이 감소하여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므로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하절기에는 아미노산 균형을 맞춘 사료, 지방이 첨가된 고에너지 사료,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산란계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켜 닭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료의 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사료질의 문제는 여름철에 들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볼때 기상이변을 불러오는 엘니뇨 현상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홍수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몇해동안 홍수 및 열대야 현상 등으로 사양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자.

올해는 경제위기까지 겹쳐 그 어느해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경험상 되돌아 볼때 고온기에는 아무리 좋은 사료를 급여해도 사료효율이 급격히 떨어짐을 경험하였다.

무창계사에서는 외부로 부터의 환경요인을 최소화 시켜 닭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지만 우리 농장을 비롯해 국내 계란생산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유창계사에서는 쉘, 에어덕트, 쿨링패드, 포깅시스템 등을 계사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여름철에 대비하는



유통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과잉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대란설에 이어 6월 대란설 등 터무니 없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 노계도태 지연과 환우 등 우매한 사태가 다시 벌어질까 염려가 된다.



지혜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3. 채란업 당면과제

소비가 40% 줄었으니 생산도 그 이상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의 농장들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며 생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소비축진 홍보, 계란수출 등에서 실마리를 찾기에는 너무나 힘겨워 보인다.

농장거래가격이 고시가격에서 1~2원 다운이 이루어지던 과거에는 1원이라도 더 받기위해 상인들과 실랑이를 자주 벌여왔으나 최근에 다운폭이 30원을 넘어 어느 지역에서는 38원까지 다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랑이를 벌일 힘조차 떨어져 버린게 현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 농장에서는 집하장에 직접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접할 기회가 드물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처럼 유통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과잉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대란설에 이어 6월 대란설 등 터무니 없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 노계도태 지연과 환우 등 우매한 사태가 다시 벌어질까 염려가 된다.

일본에서는 노계가격이 수당 60원~15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노계판매수익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3월말 노계가격이 1,100원까지 높게 형성되었을 때에도 노계도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난가하락만 부추겼고 일부 상인들은 차익을 노리고 3개월을 넘기면서까지 계란을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계란들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피해는 사양가들이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사료파동 이후 사료대금 결제도 현금에서 다시 외상으로 전환되고 있어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악조건들이 사양가들을 유혹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현금거래를 할 수 없는 농가들은 하루빨리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려된다.

4. IMF시대 대처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산조절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내실있는 농장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즉, 농장을 재점검하며 최소한의 생산비 절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농장은 증추 관리뿐만 아니라 계분처리에서도 생산비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직접 과수원에 계분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튼실한 과실을 수확하기때문에 계분의 효과가 어느 비료보다도 좋음을 확신하고 있다.

과수원에 거름을 내기 위해서는 20kg짜리 밭효계분 3,600포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를 외부에서 살 경우 최소 3,500원을 쥐야 하나 1,260원 정도가 절약되는 셈이 된다. 또한 계분처리에도 어려움이 없어 일거양득이다. 모든 농장들이 우리농장과 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주위 과수원이나 전답에 계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소비측면에서 계란우수성 홍보가 적극 추진되고 있어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협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하철 계란소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채란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한 몫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계기로 계란소비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백색산란계 사육이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미 질병예방차원과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만 해도 회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판매망만 조성되면 백색계를 사육하겠다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볼때 서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80년 이전 백색계가 시장을 점유하던 때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양계**